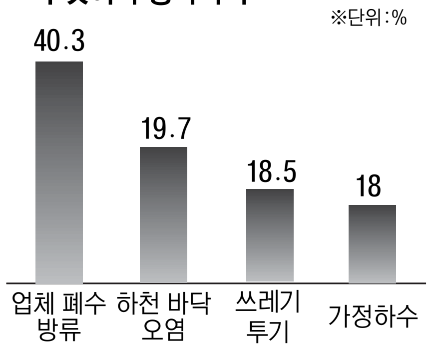
풍영정천 주민들 “하남산단 폐수 막아주오”

수완동 등 주민 7437명 설문
40% “업체 폐수가 오염 주범”
민간 참여 실태조사·감독 요구

물고기 폐사가 빈번한 풍영정천의 오염 원인을 인근 주민들은 하남산단 내 기업체의 오폐수 방류와 하천 바닥 오염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풍영정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폐수 유입 차단, 하남산단과 연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풍영정천 유지 용수 공급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 등이 광산구 풍영정천 인근 수완동, 월곡1·2동, 하남동, 운남동 주민자치센터, 초·중·고 32개교의 협조를 얻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풍영정천 희망조사 및 인식조사에는 모두 7437명이 참여했다.

■ 풍영정천 주요 오염 요인 무엇이라 생각하나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 7437명 조사〉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이 90.29%(6715명)나 차지했다.

분석은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이 맡았으며, 지역의 자료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토대로 23개의 설문 문항을 도출한 뒤 지역주민, 행정, 시민사회로 구성된 ‘풍영정천 살리기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평소 풍영정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126명(36.52%), ‘매우 그렇다’ 116명(33.62%) 등으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저 그렇다’는 72명(20.87%), ‘별로 그렇지 않다’는 25명(7.25%)이었다.

풍영정천(천변 또는 산책로 등)의 방문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0명(86.46%)이 ‘있다’고 답변했고, ‘없다’는 답변은 45명(12.97%)로 나타났다.

풍영정천의 주요 오염 요인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공단 기업체의 오폐수 방류에 대해 가장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 기업체의 오폐수 방류’가 가장 많은 172건(40.28%)이었고, ‘하천 바닥의 오염’ 84명(19.67%), ‘시민들의 쓰레기 투기’ 79명(18.5%), ‘가정하수 유입’77명(18.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풍영정천에 대해 주민들은 ‘깨끗’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현재 하천의 오염, 악취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쓰레기 투기와 같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소에 대해 걱정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희철 기획부장은 “이번 조사는 풍영정천 유역에 사는 11만명 가운데 6.76%에 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시도이자 방안을 제시한 절차적 중요성과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풍영정천에서는 지난 3일 새벽 하남산단 하남3교 하부 도천 제1배수관문에 강산성(pH3.2) 폐수가 유입, 풍영정천 하류 1.9㎞가 오염되는 등 올 들어서만 6번째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가운데) 광주시장이 지난 7일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열린 ‘맑은 공기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미세먼지 대비 공기산업 육성 주력

맑은 공기 도시 비전 선포식

광주시가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친환경 도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7일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맑은 공기 도시를 조성하고 공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조선대 총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와 협약체결, 정책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위협 요인을 지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정원도시 조성, 공기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친환경스마트자동차산업 육성 등 친환경적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국제기후환경센터, 한국공기안전원, 광주산학연협의회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기산업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윤장현 시장은 “우리는 맑은 공기와 물, 먹거리가 있는 토양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기술, 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광주시는 이번 비전 선포에 참여한 연구기관, 대학 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정책포럼에서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장 등 패널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 추세, 산업계의 동향, 공기안전 분야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공기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주는 광산업, 자동차·에너지산업 등 연관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최적지로, 공기산업이 집중 육성된다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방인축구대회 준우승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5일부터 3일간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소방인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경기도팀과 연장경기 끝에 1대0으로 안타깝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 관련 산하기관 20개 팀에서 1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시 “극단적 선택 미리 막자”
고위험군 복지·의료 체계 구축

한해 광주지역의 자살시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광주는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31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9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신일선) 부설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병원과 광주지역 19개 중소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를 파악한 결과 2016년 자살시도자가 1093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으로 광주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안전 정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의료진 대상 순환적 자살예방교육을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난 6월 30일 수완병원 의료진 43명에게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알리는 등 보건·복지 영역의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교육은 광주 관내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2017년 10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1개 병원 의료진 4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 장성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응급실 종사자 소진예방 워크숍’도 연다.

신일선 센터장은 “폭넓은 대중적 자살예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살 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선택적 자살예방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대학생 도시 브랜드 공모, 건국대팀 ‘광주 동요 콘텐츠’ 대상

전국 83개팀 지원

광주시 ‘제1회 광주시 대학생 참여 도시브랜드 콘텐츠 경연대회’에서 건국대 다이나믹미디어학과 ‘가나다라 팀’(박은진, 반신영, 양세진, 배지인, 안선희, 이다은)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가나다라 팀’은 한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동요를 만들어 따라 부르게 하듯 김치축제와 남도의 맛, 대인시장 등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매력물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시킨 동요를 만들어 영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영상분야에서 광주를 따뜻한 어머니로 표현한 웹 드라마를 구성한 ‘인서이’팀(건국대 다이나믹미디어학과 신서이, 최인서, 김섬휜)이, 비영상분야에서 ‘앗뜨거뜨거’팀(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박소희, 김다혜, 박연정, 조다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드림픽쳐’팀(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서준영, 홍인희, 김충홍, 신상범) 등 4팀이, 장려상은 ‘해시태그광주’팀(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이강영, 박유진, 최치운, 김가영, 나소현) 등 6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대상에는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개 팀에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4개 팀에는 50만원, 장려상 6개 팀에는 2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이번 공모전은 ‘청춘이 말한다. 광주는 ○○이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시각으로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직접 도시브랜드 홍보를 주도하는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모두 83개 작품이 접수됐다.

/윤현석기자chadol@

“급 매”

산수유/벚꽃축제,전지훈련,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융자 8-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